

농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꾸어 먹거리를 만드는 생명산업이다. 먹거리가 제대로 생산되고 농업이 발전하면 자연생태계는 자연스레 보존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농업인들은 이 다양한 생명공간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생명체를 가꾸는 귀중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발독재시대에 우리경제가 압축성장을 하면서 생겨난 도시 중심적인 풍조 때문이다. 지나친 산업화 지상주의는 농업과 농촌을 지킬 사람조차 없게 만들어 버렸다.

도시소비지를 중심으로 이룩된 공업화 덕택에 우리들의 생활은 풍요롭게 됐지만,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소득저하로 활력을 잃었다. 농업은 도시로 떠나지 못한 노인과 중년의 부녀자들 뒷이 되고 말았다. 농촌에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농촌지역 주민들도 삶의 생기를 잃고 있다. 반면에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된 도시는 실업난, 주택난, 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사람 살기가 힘들고 고달픈 곳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도시는 아직도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다. 농업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되어야 우



글 | 양병우

농업인은 농산물+디자인+서비스 6차 산업의 CEO

한국 농업의 미래



리 농업은 살아날 수 있다. 미래를 열고 돌아오는 농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우리 기성세대는 서둘러서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농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고 산업(공업)화만이 살길이라는 편향적 경제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 후세대들에게 농업이라는 직업은 자연과 함께 그리고 대지와 함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직종이라는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농촌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말이다.

둘째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청정한 환경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도시의 중심부에서 농촌으로 옮겨올 수 있는 도시민들의 결심이 필요하다. 항락 산업화되고 있는 도시 관광산업을 농촌 중심의 전전한 녹색 및 체험관광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지혜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한 시대에는 보다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만큼 농업인들의 소득은 높아졌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인들은 다수확품종의 개발에 맞추어 화학비료를 다량으로 사용하여 농산물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 왔다. 이 녹색 혁명을 통해 식량자급도 이룩했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1994년 UR이 타결되고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대거 수입되자 우리 농업은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2004년이면 쌀시장마저 완전 개방될 공산이 크다. 미곡재배 수입이 농업소득의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쌀개방은 새로운 농업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고 소득도 보장될 수 있는 대체 작목을 찾는 일이 모든 농업인의 과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작목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아니 애당초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에도 농업인들은 아직도 땅에서만 모든 부가가치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땅이 아닌 시장의 변화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추천도서)

『생태마을 길잡이』 이병철 지음 | 녹색연합 | 223쪽 | 값 8,000원

-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망, 생태마을의 생산과 경제, 도농교류, 공동체와 교육, 생태마을의 시스템 등을

소개하는 책.

—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 지음 | 푸른나무 | 302쪽

- | 값 7,500원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균형감각과 우리시대의 경제적인 쟁점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인식하게 한다.

—

『거북선 농업』 정운천 지음 | 한국지식농업인회 | 262쪽 |

- 값 10,000원 • 농업의 입문, 수입개방과 대응, 농업의
제자리 찾기, 시련과 극복, 새로운 도역, 고구마 개발,
유통사업단의 미래를 담고 있는 책.

—

『수입개방과 한국농업』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비봉 | 318쪽

- | 값 5,000원 • 수입개방의 실태, 수입자유화론 비판과 함께 농산물 무역 교섭,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농지수 문제 쌀 수매가 문제 등을 다룬다.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에 먹거리에서 이제 맛보다는 멋, 즉 디자인과 서비스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원천이 되고 있다.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디자인과 서비스가 결합될 때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향상된다. 즉 농업이 1차 산업적 특성에서 2차(가공) 및 3차(서비스) 산업적 특성으로 바뀌고 있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자면 농업은 6차의 특성(1차+2차+3차의 결합)을 갖는 농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농업인들은 어떻게 대응하여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친환경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식품을 개발해야 한다.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소비자의 입맛을 수입식품으로 채우고 있는데 이를 우리 전통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농업인들이 고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챙겨야 한다. 우리 농업의 사활은 지역의 전통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지역 전통식품 산업의 육성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은 6차 산업의 CEO로서의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석유 같은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식량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식상해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 우리가 짚어져야 할 가장 큰 비용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재정부담일 것이다. 독일의 통일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우리 한반도에서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북한의 정치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주민들의 먹거리가 해결된 덕택이다. 북한이 겪고 있는 최근의 식량난을 고려하면, 통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 통일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일은 많겠지만, 농업분야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는 자본주의식 협동농장의 운영방안을 통일 전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북한 농업은 토지의 사유가 허락되지 않는 집단농장제로서 공동생산의 형태이다. 통일이 된다고 일시에 공동생산체제를 없앤다면, 북한의 농업인들은 자본주의 농업생산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생산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남한 식의 토지 사유제는 장기간에 걸쳐 정책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이 많아 밭작물과 사료작물(특히 옥수수)을 재배하는 지역이 많다. 때문에 풍부한 임산물 원료를 활용한 식품가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료작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이를 북한에서 값싸게 재배하여 남한의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직하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거듭나며, 북한 사람들의 먹거리까지 책임지는 정책 등 이상 3가지가 이룩되는 미래가 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랑이 절실히다. 한 산업이 제 자리를 찾는 데 단방적 묘책은 있을 수 없고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